◈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94 예수사랑 큰잔치 모두 마쳐

새신자 총 3,937명 중 1,714명 결신
이제는 양육에 힘쓸 때
10월 30일(주일), 교구별로 새가족환영회 가져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까지하여 모두 끝났다.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는 주일애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전주간 내내 모였고 또한 교회학교가 별도로 모였기에 지난해와 같이 이 주일 내내 붐비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주간중에 모이는 초청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이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다함께 모여 잔치를 하려던 계획은 진행되어감에 따라 다소 차질이 생겼다. 아시안게임의 TV중계와 비가 뿌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나 초청전도집회를 처음해 보는데 오는 적응하지 못한 점들로 인해 교우들은 초청전도집회보다는 주일에 나오는 쪽을 많이 택했다.

통계적으로도 11일(화) 저녁부터 15일(토) 오전까지 여섯 차례에 참석한 새신자는 1,300여명인데 비해 주일 1부 ~ 저녁찬양예배까지 2,600여명이 출석한 경우가 그것이다.

▲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차분한 가운데 끝났다. 지난해와는 달리 주간중에 태신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초청전도집회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기간중에 새로 우리 교회를 찾은 사람 3,973명이고 그 중에 결신한 사람이 1,714명이었다. 지난해의 3,937명 출석보다 36명이 증가했으나 결신율은 10% 정도 떨어졌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얼마나 인도하여 왔는가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양육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지난해 새가족위원회를 신설하고 새가족들을 돌보는 양육위원들을 선발하여 현재 300여명의 양육위원을 확보해 놓았다.

이 양육위원들은 금번에 결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배정하여, 결신한 자들이 적어도 세례를 받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위원들로 하여금 이들을 돌아보면서 양육할 계획이다.

또 새가족위원회에서는 매 집회가 끝날 때 초청카드를 수거하여 모든 분류와 통계를 하여 전산입력을 해왔다. 이 가운데 결신한 자들은 이미 지난 주간에 각 교구로 이송하여 담당 교역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심방·입적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

금번에 결신하고 등록한 자들을 위한 새가족환영회는 10월 30일(주일)에 각 교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예수사랑 큰잔치 진행본부에서는 금번 환영회를 위하여 각 교구별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등록자들을 환영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위해서 더욱 더 뜨거운 정성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인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늘 옆에서 보살펴 주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정기 회계감사 실시

회계 감사가 10월 23일(주일)부터 11월 27일(주일)까지 실시된다. 각 지회의 회계 담당자는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지참하고 선교관 4층의 감사위원회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는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충현 남성중창단 임명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충현남성중창단이 임명됐다. 단장에 남선우 장로, 지도에 현상민 목사, 반주 김윤경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와 단원에 안신욱, 이재욱, 김봉균, 전이배, 노영광, 한충영, 이규원으로 이들은 지난주 초청전도집회 및 주일 저녁 예수사랑 큰잔치에서 특별찬양(아래 사진)을 했다.

▲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초청전도집회 기간 동안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시리즈로 쉽게 전하였고, 매 집회시 마다 구원 초청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매 집회시간마다 생겼다. 총 3,937명의 태신자가 출석하여 1,714명(43.5%)이 결신했다.

충현강단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3:14-22)

신 성 종
<목사 · 당회장>

라오디게아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은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라오디게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오만하고 교만한 교회의 유형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리기아의 수도로 은행이 많은 상업의 중심지이고 산업이 매우 발전해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또 안약과 온천과 의류제조업으로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외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스클렙피우스라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라오디게아교회는 유행에 민감하고, 물질주의적이며 미지근하고 세속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안일태평의 교회이고 타협주의의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자칫하면 이런 자기 만족, 안일태평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의 문제만 생각하면 자칫 라오디게아교회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라오디게아교회에 나타난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14절) 라오디게아교회가 가지고 있는 타협적인 불신앙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아멘이시요"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둘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되이 증거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창조주로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3. 편지의 내용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15절) 예수님은 칭찬 한 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말은 그 교회의 비리, 불신앙적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쁜 점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도 다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교회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합니다. 교인들 중 신앙적인 열심이 아주 뜨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유익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뜨거운 사람들만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뜨겁기만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차가운 분들이 필요합니다. 차갑다는 말은 종교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바로 라오디게아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16절)고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빈곤한 것과 가증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17절) 두번째 문제점은 영적인 무지와 오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무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안됩니다. 주후 60년 경에 그곳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듯 이곳 사람들은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오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곤고하고 벌거벗었다고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17절) 세번째 문제점은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르기만 하면 안질이 금방 낫는 프리기안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처럼 좋은 안약으로 육적인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의류제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들은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영적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세마포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못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청의 옷이 바로 의의 세마포옷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교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4. 주님의 징계와 경고

주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19절).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에 라오디게아교회가 살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18절) 첫째 비결은, 우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흰 옷, 의의 세마포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의 세마포옷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눈에 바르는 안약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진리도 보이고 천국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19절) 두번째 비결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 없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19절) 세번째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교인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20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초청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서 더불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더구나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쁨이요 교제요 특권입니다. 특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기쁨을 나누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절) 예수님의 보좌, 왕의 보좌에 앉는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는 승리자만이 앉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마련해놓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 만족에 빠진 라오디게아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서 왕되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기·고

사탄도 음악을 선택한다!

최 광 덕
(아멘찬양대 지휘자)

몇 일전의 일이다. 선아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상담을 요청하여 왔다.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일은 종종있는 일이기에 평소의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정한 시간에 상담에 들어갔다.

선아의 손에는 서태지 테이프 2집이 들려 있었으며, 곧 나에게 건너 주면서 한번 들어 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그 테이프를 받아 들고 오디오에 넣고 작동하여 보았더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반복하여 들을 때, 한방 맞은 느낌을 받았으며 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의 쪽지를 건네 주는 것이다. 그 쪽지를 받아 들고 읽어 내려가며, 대견하기도 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선아가 예쁘기도하여 고맙다고 격려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쪽지의 내용은 서태지의 노래 '하여가(何如歌)'의 노래를 뒤로 했을 때 나타난 가사를 적은 것인데 "오 내 속에 들어 있는 사탄을 내 영혼이 사랑해요. 난 너를 지배해 사탄이 너를 지배해 너를 지배해 사탄이 너를 지배해 사탄이…"의 내용이었다. 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조금전에 테이프에서 들었던 내용 그것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 '도그 시나타스(Dog sinatas)' 'Rock'의 책을 통해 음악 속에서의 사탄의 활동을 소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는데 직접 우리 가요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음악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중요하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음악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우울하다든가 하는 경험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사무엘상 16:14-23).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송중에 거하시고(시 22:3), 황소를 드림보다 음악을 통한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시 69:30-33)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구원 받은 자의 내면에서 흐르는 감사의 소리로 창조자의 속성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음악의 사용이어야 함은(사 43:21) 당연 하다. 그런데 사탄은 감사의 소리보다는 음악 속에서 흐르는 반복적인 리듬과 점점 커져가는 과음(過音)을 들을 통해 인간성을 마취(마비)시키고 자극에 더 큰 자극을 불러 일으키게하는 광란(狂亂)을 조장하여 창조의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면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탄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 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고 그 질서를 파괴 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땅의 것에 만족하며 찾게 만들어 참 기쁨 없고 소망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며 속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사랑)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의 사랑을 보였는데, 일련(一連)에 일어난 지존파의 사건이나, 온보현의 사건 또 사이비종교(이방종교)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을 통해 알듯이, 사탄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로 바꾸어 놓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창 1:27) 되었기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어야 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좇아 살아 가려는 우리의 모습(갈 5:16)에, 사탄은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일을 좇게 하여(갈 5:17)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게 하려는 사악함으로 가득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사악함을 사탄은 이상한 음악-반복적인 리듬, 엄청난 볼륨(괴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통해 나타내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음악은 정적인 면(Melody)과 동적(Rhythm)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요소중 정적인 면을 우선하는 것이 음악이라면 동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반복적인 리듬, 엄청난 볼륨(Volume)하여 흥분시키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여 일면의 인간의 속성에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보다는 더 커다란 자극을 받아야 어떤 행복감(?)에 빠뜨려 인간성을 마비시킴으로써 점점 광기로 흐르게 하고 있다.

바로 Rock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헤비메탈(Heavy Metal)', 'Rock'n-roll', 'Rock 음악' 바로 이런 음악들이 장본인 것이다. 특별히 요즈음 젊은 층에 유행하고 있는 랩(Rap)이라는 단어는 "…을 소리 질러 말하다, 똑똑 두드리는 소리로 나타나다, 때리다, …소리질러 말하다, 꾸짖다, 비난하다"의 뜻과 "아주 조금 무가치한 것"으로 사전은 표기하고 있듯이 '하여가(何如歌 - 서태지 Tape2집)'에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랩(Rap) 음악 또한 주의 하여야겠다.

음악 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흐르고 있는 가사 또한 중요하다. 교회음악에서 가사가 없는 음악은 수단이지만 가사있는 음악은 찬양곡이 되는 것처럼 목적이 된다. 그러기에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골 3:16)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로 삼고 있는 하여가의 가사는

"너에게 모든 걸 뺏겨 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연인이라
믿어 왔던 내 생각은 틀리고 말았어
변해 버린 것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던 예전의 네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네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게 그리워진거야
(생략)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를 끝나는 부분부터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테이프를 조작하여 들어본 결과

"오 내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내 영혼이 사랑해요
난 이제 아냐 니가 날 니가 찾아
온 이후로는 널 받아도 돼
너를 난 너를 지배해 너를 지배해
사탄이 너를 지배해 너를 지배해
사탄이
어찌 여기 울고 있나 행복에 젖는
웃음 너도 받으라 그러면 웃을껴야
어떻게 하면 알까 행복감에 웃는
웃음 이제 너에게 들어가도 돼…
(이하 생략),
난 너를 지배해 너를 지배해
사탄이 너를 지배해 "3번 반복"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하여가'가 갖고 있는 리듬이 고스란히 살아 있으면서 이런 노랫말이 뚜렷이 들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하여가' 작사자와 작곡가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사탄의 지배가 무의식 중에 음악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며 '하여가'라는 노래를 들으면 들을 수록 내면에 흐르고 있는 사탄의 지배적인 내용과 함께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부르는 노랫말이 씨앗이 되어 부르는데로 이루어진다면 가사는 작사자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표출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자와 그 시를 쓰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어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한다.

바로 사탄은 음악과 음악에 내포하고 있는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악한 활동을 막기 위해선 음악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의 음악이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음악도 작곡한 이의 내면과 함께 창작한 이의 내면과 함께 음악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토착화라는 미명 아래 '굿거리 장단'을 교회음악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본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타내기 위하여 사탄의 활동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죄와 악이라는 것을 공존시키고 있는 것처럼 음악도 주된 것(정적인 면-Melody)와 부수적인 것(동적인 면- Rhythm)인 이 두 요소가 잘 어울려야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이 나올 수 있다. 즉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함께 있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모하게도 사탄은 이 두 요소가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 말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처럼 주된 것은 버리고 부수적인 것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대학에 가려는 수험생은 시험 공부가 주된 일이나 부수적인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몰두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또 항해사가 항로를 따라 가는 것이 주된 일인데 항로를 벗어나 부수적인 다른 항로를 선택하였다면 안심할 수 없는 일일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가정, 찬양대 교회에서도 해당 될 것이고, 어느 것이든 부수적인 것을 선택하여 주된 것인양 인식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선택에서 주된 것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결국 사탄은 주된 것을 떠나 부수적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임을 절감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됨을 고백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다. 더욱 깨어 기도하자.

영적인 세계에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길 기도하며 이 일을 통해 사탄의 활동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토막소식

◆ 영아부는 지난 주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베풀었다. 오는 30일 주일에는 영아부를 수료하는 사진을 본당 앞에서 찍는다.

◆ 유치부는 지난 주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끝냈다. 11월 6일에는 성경이야기대회를, 13일에는 수료생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다.

◆ 초등1부는 10월 23일(오늘)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10월 22일(토)에는 새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마당에서 운동회를 가졌다.

◆ 초등2부는 10월 30일(주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하며 10월 23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란 주제로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벌릴 예정이다.

◆ 초등3부는 주일 오후(오전 11시 40분, 교육관 308호) 및 수요일 오후(오후 4시, 교육관 109호)예배를 드린다. 교회 근처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 초등4부는 10월 23일(오늘) 예수사랑 큰잔치를 연다. 11월 6일까지 반별로 수료사진을 찍고 있다.

◆ 초등6부는 10월 30일(주일)에 94년도 총결산 안드레초청잔치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 중등 1·2·3부는 10월 29일(토), 연합 시와 찬양의 밤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중등 각부에서 모인 출연팀은 독창, 중창, 시화전, 기악 연주 등으로 중등부 전체가 모이는 큰 행사이다.

◆ 고등부는 10월 23일(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제2차 미래 지도자운동)을 전개한다. 학생들이 준비한 '충현 찬양 한마당'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대학부는 대학부 예수사랑 큰잔치를 11월 5일(토), 오후 5시에 Home Coming Day와 신원에벤에셀의 박성철 회장의 특강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막을 올린다. 11월 6일(주일) 오후 1시에는 초청전도집회를 열어 태신자를 위한 시간과 중견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영역별 좌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 장년1부는 11월 13일 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달란트발표회를 갖는다.

◆ 장년3부는 12월 4일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이사야서 전 장과 로마서 1~6장.

◆ 에바다부는 지난 주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했다. 오는 11월 20일에는 에바다부 6주년 기념행사와 제3회 수화찬양제를 갖기로 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24일(월) 94 세계 뉴욕성령화 대성회 인도차 출국,
   25일(화) 94 세계 뉴욕성령화 대성회 환영 리셉션 인사말 (퀸즈 한인교회 체육관),
   26일(수) 94 세계 뉴욕성령화 대성회 강의 및 설교(퀸즈 한인교회 체육관)
   · 신성종 목사 : 24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2. '94 예수사랑 큰잔치 결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사 성도로서의 길을 걸으며 많은 열매 맺게 하여주옵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죄악이 가득찬 이 땅을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부정과 불의와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모든 보좌관들이 바르게 보좌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5. 세계선교의 비전을 주시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파송된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시며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학부 첫 Home Coming Day 행사를 준비하며

신앙의 본으로서의 선배를 기대

김 요 섭
(대학부 회원

돌아오는 11월 5일(토)의 대학부 첫 Home Coming Day 행사를 준비하면서 소망스럽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충현교회 대학부가 발족된 지 어언 24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대학부를 거쳐간 수백, 수천의 선배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내에서 조차 서로가 얼굴을 모르고 충현교회와 민족교회를 위한 동역자임도 확인하지 못하고 선배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의 성원과 경험의 전달도 없이, 후배들에게 대학부라는 곳은 한번 몸 담으면 끝나는 곳으로, 그 외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뿌리없는 집단으로 남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학부 초대 회장님이셨던 분이 해군 군목으로 계시다가 젊은 나이로 과로사하셨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웬지 모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대학부라는 점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했던 선배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첫 Home Coming Day 행사가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지역연고 중심의 모임과는 다른 모습으로, 1기 선배님들로부터 지금의 대학부 성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지난 24년간 대학부와 충현교회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함으로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개인의 삶과 대학부, 충현교회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서 한 동역자로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흐뭇하며 소박한 모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대학부라는 곳은 교회 주일학교 단계에서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직후의 신앙 수련장으로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젊은 집단일수록 충현교회 대학부 선배들에게서 전수받아야 할 신앙적 전통이 면면히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부를 신앙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지도해줄수 있는 선배들의 모임인 동문회의 발족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모든 대학부 출신 선배님들께서는 이 첫 Home Coming Day 행사에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연락하시고 참여를 권고하시며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994년 11월 5일 (토)
· 오후 : 4:30 - 7:00 - 예배와 교제, 동문회 발족
7:00 - 9:00 - 신원 에벤에셀 박성철 회장 초청 특별신앙강좌 「21세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장소 : 선교관 지하 1층 만나홀

징검다리

하나님, 삼년만 일 할께요. 그리고…

계 선 화
(전도사, 16 교구 담당)

부족한 자에게 귀한 신학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는 3년만 교역자로 일해드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평범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3년을 일하는 동안 이 일은 3년으로 그칠 일이 아님을, 내 평생 머리가 희도록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결혼 후 사역을 잠시 쉬던 나는 조심스럽게 이 일을 남편과 의논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 그만두라 마라 할 권한이 내겐 없다"라며 나의 사명을 이해해주는 고마운 남편과 아들의 사랑 속에서 다시 교육전도사 일을 하면서 나는 더욱 완숙해진 숙련원처럼 나의 일에 기쁨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일들을 주시고자 하셨다. 1년을 두고 준비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이 부족한 자를 우리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 나는 감사했고 또 교육 일을 할 때보다도 더 보람있고 기뻤다.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르신들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늘 감사를 드린다.

지금도 끊임없는 기도와 권유로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시는 어머니, 늘 기도해주시는 고향 교회의 성도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는 날까지 잘 감당함밖에 없는 것을 나는 안다.

어떤 사역자가 '내 환경이 부요하다면 이 힘든 일을 난 안 할꺼야' 했던 말을 듣고 실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내 환경이 부요하든 궁하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일 감당함에 있어선 문제 삼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기도드린다. 또 노력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화목하며 영·육이 풍성함으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본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욕심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아내와 엄마로서의 일을 모두 다 멋지게 하고 싶다. 그 어느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편의 짜증스런 아내가 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결코 태만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일을 다 잘하기란 너무 어려워 나는 자주 집안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남편은 그것이 싫고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고마운 남편에게 봄으로는 못다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고백한다. 그는 피식 웃는다. 피식 웃은 그의 너그러운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느끼며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사는 가장 작은 자임에 틀림없다. "주여, 이 작은 종을 긍휼히 여기사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 이 난은 교역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는 난입니다.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순 입니다